"여수 이순신광장 축소 안 된다"

용역 결과 설명회 "유적지 포함…축소해야"

시민들 "원도심 활성화 무시" 강력 반발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진남관 주변 중앙동 일대 2만9천700㎡에 850억원을 들여 이순신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타당성 조사 및 조성계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을 맡은 A사는 전체 예산 620억원에 2만7천900㎡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A사는 "당초 계획했던 이순신 광장 부지 일부가 문화 유적지여서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피하기 위해 4가지 시안 가운데 당초보다 규모를 줄인 1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업구역 내에 생활터전을 두고 있는 중앙동 주민들은 이같은 용역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진남관 성역화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등 이순신 광장을 여수의 랜드 마크로 만들겠다는 당초 약속이 시간이 갈수록 바뀌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여수시민 1천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87%가 광장 조성에 찬성했으며 광장 명칭은 '여수광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상징조형물로는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만 연안습지를 아시나요"

순천시 공무원, 전국 대도시 순회 市 홍보

서울서 여수박람회 유치 영상물 상영도

순천시 공무원들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돌며 순천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 이미지를 널리 알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도시 순회 길거리 홍보 마케팅'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시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이 서울시청 앞 광장과 청계천, 인사동 등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관광 책자를 서울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영상물도 상영해 박람회 유치를 기원했다.

순천시 공무원들은 올해 말까지 부산과 대구, 대전, 인천 등 대도시 4곳을 추가 방문해 순천시를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 시민들 중 순천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지역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전국 최고 감상형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순천만(灣)을 도시인들에게 적극 소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시, 특수강관 제조업체 유치

市-스틸 플라워, 양해각서 체결

500여명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특수합금 강관 제조업체인 ㈜스틸플라워 공장이 순천에 들어선다.

순천시는 2일 특수합금 강관제조 및 가공업체인 ㈜스틸플라워와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스틸플라워는 6만6000㎡ 부지에 철강가공 공장과 강관제조 공장, 정밀가공 공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철강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 협업화 단지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15개 이상 관련 공장 유치로 5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특히 스틸플라워는 영남권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유치에 성공한 경우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도서 벽지 주민에 소화기 150대 기증

여수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 여수로타리클럽이 지난달 28일 소화기 150대를 여수소방서에 기증했다.

여수소방서는 삼산면 초도 및 손죽도 등 도서지역에 기증받은 소화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방법 등 안전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기와 아궁이, 가스 등 도서지역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동시에 실시된다.

김영진 회장은 "소방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64년 창립된 여수로타리 클럽은 지난 3월에도 여수출신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1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매년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돕기, 심장병어린이 수술 등 각종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불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여수소방서(서장 강대중)는 지난달 27일 선경유치원 원생 60여명을 초청,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청각 교육, 홍보전시관 견학 및 소방시설 소개, 가상화재 피난훈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거문도 등 16개 항로 여객선 운항 횟수 대폭 늘려

여수해수청, 피서객 특별수송대책 마련

전남 동부지역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여객선이 증회 운항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학행)은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오는 20일부터 8월15일까지를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했다. 여수해수청은 이기간 동안 여수~거문도 등 16개 항로에 총 16척의 여객선을 투입, 평소 1천890회 운항하던 것을 2천378회로 늘린다.

특히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수~거문 항로와 돌산 신기~여천 항로 등 주요 노선은 여객 증가 추이에 따라 운항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계획대로 여객선이 증회 운항될 경우 하루 최대 1만5천780여명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수송기간 중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기상악화나 비상사태시 신속하게 운항상황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여수해수청은 이밖에 여객선 교통 불편신고센터(061-650-6031, 6046)를 운영,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농업인 정보화 우수기관

순천대 '농업 119팀' 선정

순천대학교 '농업정보 119서비스팀'(책임교수 임요섭 교수)이 농림부 주관 '농업인 정보화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농업기술센터와 농과대학, 농협 등 농업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165개 시·군지역 300여 기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순천대 '농업정보 119 서비스팀'은 지난 1999년 발족이후 순천을 비롯해 곡성·구례·광양·여수·고흥 등 전남 동부권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 대상은 ▲인터넷 정보 탐색요령 ▲농업관련 사이트 이용 방법 ▲농산물 전자상거래 구축 등 기초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다양하다.

특히 농업정보 119서비스팀은 각 농가를 돌며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재향군인회도 박람회 유치 앞장 결의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원 4천여명은 지난달 29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6·25 전쟁 제 57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호국보훈정신을 기렸다. 이날 재향군인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앞장설 것도 결의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